

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⑦

能制舌賊 不貪邪味 讚談講說 無疲厭心 名爲精進 能伏身賊 無疲厭心 名爲精進 能伏身賊 無疲厭心 名爲精進...

方證佛果 若言如來 食於世 間狀欲和合 不淨穢之乳者 間狀欲和合 不淨穢之乳者...

다시 물었다. "경문에는 '석가여래 게서 보살로 계실 때, 서 말 여섯되의 우유를 드시고 비로소 성불하셨다' 했습니다. 먼저 우유를 드신 후에 불과(佛果)를 증득하셨는데, 어째서 관심(觀心)만으로 해탈한다 하십니까?"

육바라밀은 배와 같아서 모든 중생 피안으로 운반

같이 모든 중생을 운반하여 피안에 이르게 하므로 육도라 하는 것이다."

又問曰 經文所說 釋迦如來 有問曰 經文所說 釋迦如來 有問曰 經文所說 釋迦如來 有問曰 經文所說 釋迦如來...

如來者 自是金剛不壞無漏法身 自是金剛不壞無漏法身 自是金剛不壞無漏法身 自是金剛不壞無漏法身...

여러란 금강석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무무법신(無漏法身) : 번뇌 없는 진실한 몸'이라는 세상의 고통을 영영 떠났는데, 어찌 이같은 부정한 우유로 기갈을 면했겠는가. 경에 말한 것처럼 '이 소는 높은 언덕에도 있지 않고, 낮은 습지에도 있지 않고, 곡식이나 지게미도 먹지 않으며, 잡된 소와 어울리지도 않으며, 몸은 자마금색(紫摩金色)이다' 하였으니, 이 소는 바로 비로자나불인 것이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화산스님

대구 보광원 조실

"나는 강이다, 나는 계곡이다 생각하세요. 강에는 나무 가지가 떠내려와 걸리기도 하고 나뭇잎이 떨어져 흘러가기도 하며 뱀이 헤엄쳐가고 개구리 울창이 울고기들이 서로 잡아먹기도 합니다. 그래도 강은 유유해요. 그냥 흘러만 갑니다. 버들가지가 물에 늘어뜨려져 흔들흔들 체질을 해도 물결만 살랑살랑할 뿐이지요."



- 1919년 경남 양산 생
17세때 통도사 지장암서 허몽초스님을 은사로 득도
방한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
일본 임제선문학교 졸업
성균관대 철학과 졸업
통도사 강주 역임
현재 대구시 수성구 보광원에 주석

"마음만 잘 쓰면 잘 사는 길"

-가득이나 각박하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특히 요즘 더 시끄럽고 시시비비가 많습니다. 의료분쟁이다, 금융대란이다 하여 국민들은 생각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가 더욱 광배해져 갑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일소시키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 행복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해법이 있는데 일상생활속에서 찾지 않고 생활을 떠나 멀리 찾고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생활하는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지 그 밖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해요. 모범을 멀리 찾는 것이 없어요. 화화초초(花花草草), 풀마다 꽃마다 다 때가 되면 스스로 만발해서 대자연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속에서 체득하지 못하고 그것 말고 별도로 있는 줄 알아 불법을 찾고 인생의 살아가는 방법을 나 아닌 밖에서 구하려고 하니 어렵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고 그래서 어리석다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바로 네가 입고 있는 옷속에 밝은 보배구슬이 들어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지요. 보배구슬만 찾으면 단체든 개인이든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 멀리 있는 줄 아느냐.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네 옷속에 있다. 네가 입고 있는 옷속에 들었건만 들었는줄 모르고 삽니다. 거의 대부분이...

《법화경》에 이러한 비유가 있어요. 각별한 친구로 지내는 두사람이 있었는데 한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고 한 친구는 항상 곤궁해요. 하루는 가난한 친구가 정승을 하고 있는 집사는 친구를 찾아왔어요. 도움을 청하니 정승을 하는 그 친구가 깜짝 놀래요. 내가 전에 너에게 준 보배가 있는데 그것은 어쩌하고 아직까지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가난한 친구도 깜짝 놀라 되물어요. 언제 주었느냐. 지난번 나를 찾아왔을 때 너에게 보배구슬을 사는데 보배가 되라고 주었다. 내가 밥을 먹고 곤히 잠이 들어있고 나는 일을 보자니 나가야 되는데 네가 너무 깊이 잠이 들어 깨울수가 없어 잃어버릴까봐 네 옷깃에 보배를 꿰대 넣어주었다. 그러자 친구는 나는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옷깃을 찾아봐라. 해서 옷을 들치고

보니까 옷깃안에 보배구슬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 몸에 보배구슬이 들어있는 것도 모르고 곤궁하게 산 거지. 이 이야기는 뭘 비유한 것인가 하면, 사람이 자기자신속에 있는 보석을 찾으면, 즉 마음만 잘 쓰면 그것이 잘 사는 길인데 그것을 모르고 무명속에서 헤맨다는 뜻이죠.

요새 계속 사회적으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는데 문제의 해법을 남이 주려니 하고 기대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각자가 자기의 행할 바를 찾아서 자기 일만 하면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것

면 좁은대로 흘러갑니다. 무언가 따라 내려오다 걸쳐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물따라 내려가지요. 그 자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화산스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냐는 질문에 강처럼 게 꼭처럼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각각각색의 만물이 모여서 이 세계에서 서로가 서로를 그 자체로 인정하며 조화롭게 살아갈 묘리만 터득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하시는 화산스님에게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가 하는 지 가르침을 청했다.

강에서 이기기만을 추구하며 사는 현대 한국인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십시오. ▲장자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학의 다리는 길고 오리다리는 짧다. 오리다리가 짧다고 학의 다리를 빼가지고 오리 다리에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해 지는가. 절대 만족해지지 않아. 오리다리가 짧다고 해서 학의 다리를 갖다붙여주면 슬퍼해, 괴로워. 맞지 않거든. 오리는 짧은 그대라고 좋거든. 또 객관적으로 볼때도 학의 다리가 너무 기니까 오리다리를 빼어 붙이면 균형이 맞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예요. 짧은 오리다리가 균형이 맞고 길면 긴대로 균형이 맞거든. (부자합집경)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경책으로 삼으세요.

"탐욕을 끊지 않으면 불에 마른 나무를 지퍼 주는 것 같다. 그러므로 응당 이를 제거해야 한다.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이 더욱 심해지리니 욕망에 집착해 있는 자의 심증별 줄 모름도 또한 그러하다. 이같이 온갖 욕망을 좇아하면 탐욕의 불꽃은 더욱 치열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 마땅히 청정한 지혜의 물로 이를 꺼서 남김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나는 신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자기 자신이 편안하고 싶거든 우선 내 주위사람부터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라고 합니다. 내 주위라 하면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주위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가까운 주위사람부터 즐겁게 해 주고 편안하게 해주려나. 남을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면 진정으로 편해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심(下心)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로는 쉽지만 하심이란 것이 실천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절집에서도 중이 되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시는 하심(下心)공부입니다. 하심공부는 더 수승한 공부를 성취하기 위한 밑천이 되는 수행입니다. 하심공부는 마음을 다루는 공부예요. 하심을 일반사회의 말로 하면 '겸손'이지요. 요새 특하면 "자존심 상한다" 그래요. 자존심을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석씨명향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효능: 화염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용도:
- 불보살께 예물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례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진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hyangbang.com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예금주: 김정순

전화주문도 가능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02)3446-8148, 3446-5889

공급자: 석씨향방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舊 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능체험"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로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0047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不老 仙經藥也 (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나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